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총괄_ 이성우 실장, 감수_ 김형태 감리위원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국제물류시장 및 국제물류사업 동향 중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신규사업 발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업체 회원 및 관련분야 기업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관련 정부정책 등의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관련 국내 관심기업, 정·관·학계 관계자 여러분께 매주 수요일 배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국제물류관련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저희 센터로 연락¹⁾을 주시기 바라며, 동일사업에 다수기업들의 투자요청이 있을 경우 본 센터가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및 지원들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목 차 〉

□ 아프리카 모리셔스, 200억 루피 규모 신규항만 개발 계획	2
□ 호주 보타니항, 시설 운영권 99년간 매각 예정	3
□ 일본 중견 물류기업들, 베트남에서 배송 네트워크 확장 중	4
□ 중국 푸저우항, 닝더항과의 통합을 통해 대규모 항만으로 도약	5

1) 연락처: 김찬호 전문연구원(02-2105-2908, chkim@kmi.re.kr), 송주미 전문연구원(02-2105-2872, jmsong@kmi.re.kr),
김홍매 전문연구원(02-2105-2828, hisgrace@kmi.re.kr), 전해경 연구원(02-2105-2982, saeii@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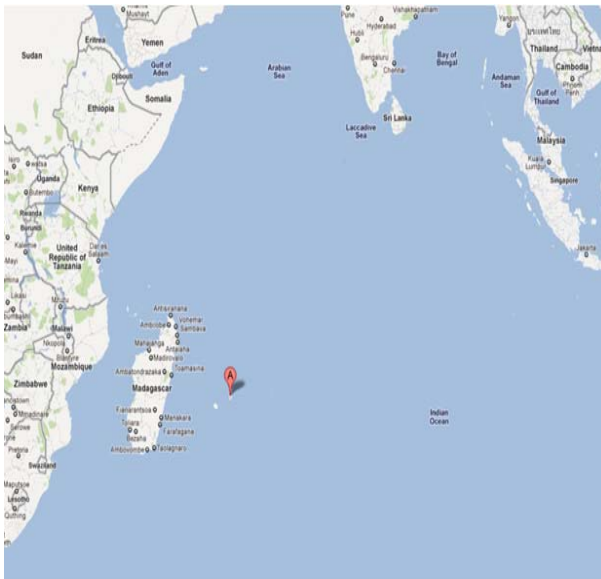
2) 해외투자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위클리 맨 뒷장의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MI 국제물류위클리

□ 아프리카 모리셔스, 200억 루피 규모 신규항만 개발 계획

- 인도양에 위치한 아프리카 모리셔스의 항만공사(Mauritius Ports Authority, MPA)는 약 200억 루피(약 7,600억 원) 규모의 신규항만 건설계획을 발표
 - MPA는 현 포트 루이스의 Mer Rouge에서 바다 쪽 면적 약 60헥타르 규모에 3단계에 걸쳐 연간 약 200만 TEU를 처리할 수 있는 아일랜드 터미널(island terminal)을 개발할 예정임
 - MPA는 포트 루이스가 인도양에서 허브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러한 야심찬 프로젝트를 계획하였으며, 내년인 2012년에 입찰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짐
 - MPA는 신규항만 개발을 통한 200만 TEU 처리능력을 신설할 뿐 아니라 기존 포트 루이스의 약 55만 TEU 처리수준도 75만 TEU로 높일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한편 포트 루이스의 2010년 물동량은 전년도 대비 80% 증가하여, 44.3만 TEU를 처리하였음

< 모리셔스 위치 >



< 포트 루이스 전경 >



자료 : www.porttechnology.org, 2011.09.05; theindependent.mu, 2011.09.05.

송주미 전문연구원(☎ 02-2105-2872, jmsong@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 호주 보타니항, 시설 운영권 99년간 매각 예정

-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NSW) 자유당과 호주 정부는 보타니항(Port Botany) 시설 운영권¹⁾을 민간 운영사업자에게 20억 달러에 99년간 매각한다는 계획을 발표
 - 올해 말 의향서(Expressions of Interest) 제출 요청을 시작으로 2012년 10월에서 2013년 3월 사이에 매각절차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2013년 중반 거래 성사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금번에 운영권을 매각할 보타니항 시설은 2개 '컨' 터미널의 6개 선석과 1개 액체화물 선석, 그리고 2012년에 완공되는 제3 '컨' 터미널의 5개 선석²⁾도 포함
- NSW 정부는 보타니항 시설의 운영권 장기 매각을 통해 NSW의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 마련과 보타니항의 효율성 제고를 기대
 - 시드니항³⁾은 그동안 막힌 도로와 불충분한 철도 인프라로 물동량 증가에 제약을 받아 왔음
 - 퍼시픽 고속도로(Pacific Highway), 프린세스 고속도로(Princes Highway) 등의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시드니 남측의 도로연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Botany항 위치 >



< Botany항 '컨' 터미널 전경 >



참고: 국제물류위클리 57호, 77호.

자료: www.dreddingtoday.com, 2011.09.07.

김홍매 전문연구원(☎ 02-2105-2828, hisgrace@kmi.re.kr)

- 1) 주정부가 항만의 소유권은 유지하되 항만의 전체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항만개발 투자 등)을 민간 운영사업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임. 2010년 말 퀸즐랜드주가 브리즈번항의 99년 운영권을 Q Port Holdings에 매각한 바 있음.
- 2) 5개 신규 선석은 HPH가 운영할 예정.
- 3) 시드니항은 보타니항, 뉴캐슬항(Port of Newcastle)과 캠블라항(Port Kembla)을 포함. 보타니항은 보타니베이(Botany Bay)의 동쪽 연안에 위치하며, 시드니 중심에서 동남쪽으로 12km 떨어져 있음.



KMI 국제물류위클리

□ 일본 중견 물류기업들, 베트남에서 배송 네트워크 확장 중

- 니케이(Nikkei)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날로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물류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본 중견 물류기업들이 베트남에서 배송 네트워크를 확장 중
 - 일본 기업들은 저렴한 인건비 및 중국시장과의 근접성이 뛰어난 베트남에 공장을 설치함
 - 베트남 정부는 일본기업만을 위한 경제특구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는 일본 중견 물류기업의 베트남 사업 확장에 또 하나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
- 트럭운송 및 제3자 물류서비스가 주요 사업인 Japan Logistic Systems사는 오는 10월 1일 하노이(Hanoi), 다낭(Da Nang), 호치민(Ho Chi Minh)에 창고를 오픈할 예정
 - 호치민 창고는 면적이 약 2만m²이며, 베트남 북쪽의 공장에서 배송되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다시 베트남 국내 시장에 공급함
 - 호치민 창고와 비슷한 면적의 하노이 창고는 가전제품의 물류기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에어컨 제조업체와의 거래를 위해 12월에 1만m²로 확장 예정임
 - 전체 투자금액은 519만 달러로 추정되며, 연간 매출목표는 현재의 5,174만 달러에서 3년 내에 9,055만 달러로 증가시키는 것임
- 통합물류 서비스 제공업체인 Mitsubishi Logistics사는 현지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가전제품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베트남 일부 지역에 배송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전자부품, 커피 및 기타 제품의 수출입 처리를 기대
- 일본 국내 및 국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Nissin사는 베트남 내 자동차 및 오토바이 수송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일본기업이 취급하는 화물운송 전용열차를 운영하고자 베트남 국영철도와 협력
 - 전용열차는 공장들이 밀집된 하노이와 차량 판매지역인 호치민 사이를 일주일에 2회 운행하며, 화송 열차에는 가전제품들이 선적되어 북쪽 지역으로 수송됨
 - 트럭운송 시에는 종종 배송지연, 제품 손상 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 항공 및 해운 포워딩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Yusen Logistics사는 현재 방콕-하노이, 홍콩-하노이 루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노이-호치민 정기 트럭배송을 고려 중
 - 신규루트는 구 사이공(Saigon) 지역을 육상으로 태국과 중국으로 연결이 가능함

자료: www.cargonewsasia.com, 2011.0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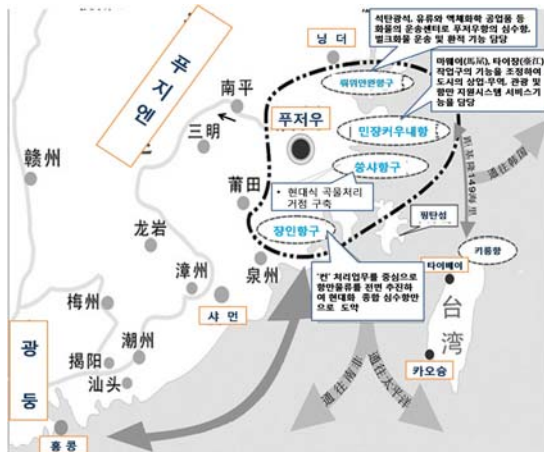
김홍매 전문연구원(☎ 02-2105-2828, hisgrace@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 중국 푸저우항, 닝더항과의 통합을 통해 대규모 항만으로 도약

- 푸지엔(福建)성 정부는 <푸저우 및 닝더항 관리체제 단일화 실시방안(福州寧德港口管理體制一體化實施方案)>을 정식으로 비준, 푸저우(福州)항과 닝더(寧德)항을 신 푸저우항으로 통합 예정
 - '실시방안'에 근거하여 푸지엔성 푸저우항 관리주체(福州港口管理局)를 설립하며 금년 3분기까지 통합작업을 마칠 예정임
- 신 푸저우항은 종합교통운송체계와 전국 교통허브 입지를 바탕으로 향후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운송을 아우르는 국제 허브항으로 발전할 예정
 - 또한 중서부 지역, 푸저우, 닝더, 핑탄(平潭) 등 배후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장커우(閩江口)와 싰두아오(三都澳)를 최첨단 임항산업 클러스터로 건인하여 해협서안경제구(海峽西岸經濟區)⁴⁾의 국제무역 관문 역할을 담당할 예정임
- 신 푸저우항은 앞으로 푸저우시, 닝더시, 핑탄의 종합실험구로서 관할구역 내 9개 항구⁵⁾의 기능을 상호 보완하여 최적화된 항만으로 성장할 전망
 - 과거 푸지엔성 연해 항만들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항만 계획, 건설, 생산, 관리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중복 건설에 따른 소모적인 내부 경쟁 등으로 경제적 우위 창출이 어려웠음

< 신 푸저우항의 범위 >



< 푸저우 및 닝더지역 9개 항구 >



자료 : www.snet.com.cn, 2011.09.02; fict-fuzhou.com.cn, 2011.05.13.

전혜경 연구원 (☎ 02-2105-2982, saiei@kmi.re.kr)

4) 해협서안경제구는 타이완 해협 서안에 위치하여 푸지엔(福建)성을 중심으로, 남북으로는 주장강삼각주, 양쯔강삼각주 두 경제권과 맞닿아 있으며 동쪽으로는 타이완, 서쪽으로는 장시(江西)성의 내륙지역을 관통하는 경제권임.

5) 민장커우항구(閩江口港區), 장인항구(江陰港區), 송사항구(松下港區), 뤼위안완항구(羅源灣港區), 싰두아오항구(三都澳港區), 싸이장항구(賽江港區), 산사항구(三沙港區), 사청항구(沙埕港區), 핑탄항구(平潭港區)

KMI 국제물류위클리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